

01 밑줄 친 단어 중 한글 맞춤법에 맞는 것은? • 16. 국가직 7급

- ① 대화는 열기를 띄기 시작했다.
② 여우도 제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다.
③ 아침에 짙은 쌀이라서 밥맛이 정말 고소하군요.
④ 아침부터 오던 비가 개이고,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다.

01 맞춤법

- ② '깃들이다'는 다음과 같은 뜻이 있다.
㉠ 주로 조류가 보금자리를 만들어 그 속에 들어 살다.
㉡ 사람이나 건물 따위가 어디에 살거나 그곳에 자리 잡다.
여기서는 ㉠의 뜻으로 쓰였다.
① ③ ④의 표기는 문맥상 어울리지 않거나 맞춤법에 어긋났는데, 이를 바르게 고치면 다음과 같다.
① 띄기→따기
③ 짙은→짙은
④ 개이고→개고

답 ②

02 표준 발음법에 맞지 않는 것은? • 16. 국가직 7급

- ① 숨이불[숨:니불] ② 직행열차[지캐열차]
③ 내복약[내:봉낙] ④ 막일[망닐]

02 표준 발음법

- ②는 '축약→ㄴ첨가'가 차례로 진행되므로, [지캐열차]로 표기하여야 한다.

답 ②

03 다음 글의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 16. 국가직 7급

어떤 사물을 역사적 인물처럼 의인화하여 그 가계와 생애 및 개인적 성품, 공과(功過)를 기록하는 전기(傳記) 형식의 글을 ()이라고 한다. 거북·대나무·지팡이·술·돈 따위의 동물이나 식물, 생활에 필요한 물건 같은 사물을 의인화해 그 생애를 서술한다.

- ① 평전(評傳) ② 열전(列傳)
③ 가전(假傳) ④ 실전(實傳)

03 문맥적 의미

- 문맥상 '사물을 역사적 인물처럼 의인화'라는 표현을 통해 '가전'에 대한 설명임을 알 수 있다.
① 평전(評傳): 개인의 일생에 대하여 평론을 곁들여 적은 전기
② 열전(列傳): 여러 사람의 전기(傳記)를 차례로 벌어서 기록한 책
④ 실전(實傳): 실제의 전승이나 전기

답 ③

04 밑줄 친 단어의 쓰임이 어색한 문장은? • 16. 국가직 7급

- ① 작가는 작품으로 말할 뿐, 그 밖의 것은 모두 채언(贅言)에 불과하다.
② 한학의 온축(蘊蓄)을 문학작품의 창작으로 승화시켰다.
③ 습작 활동을 오래도록 한 일은 그의 치밀한 성격을 야기(惹起)하였다.
④ 귀국한 동생으로 인해 우리 가족의 단취(團聚)가 실현되었다.

04 한자의 호응

- ③ '야기'는 '일이나 사건 따위를 끌어 일으키는 것'을 뜻하는 말이므로 문맥상 어울리지 않는다. '형성' 정도가 어울린다.
① 채언(贅言): 쓸데없는 군더더기 말
② 온축(蘊蓄): 오랫동안 학식 따위를 많이 쌓음. 또는 그 학식
④ 단취(團聚): 집안 식구나 친한 사람들끼리 화목하게 한자리에 모임

답 ③

05 어법에 맞는 것은? • 16. 국가직 7급

- ① 날씨가 내일부터 누그러져 주말에는 예년 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② 내가 유학을 떠날 때, 친구가 소개시켜 준 학교는 유명한 학교가 아니었다.
③ 1반 축구팀은 불안한 수비와 문전 처리가 미숙하여 2반 축구팀에 패배하였다.
④ 방송 장비를 휴대한 트럭이 현장에 대기하면서 실시간으로 상황을 중계합니다.

05 비문의 유형

- ① '예상'은 동작성 명사이므로, '예상이다'의 형태로 쓰면 안 된다. 여기에서처럼 '예상합니다' 또는 '예상됩니다'의 형태로 써야 한다. 따라서 어법에 맞다.
② '시키기'의 쓰임이 어색하다. 불필요한 사동표현에 해당한다. '소개해준'으로 써야 한다.
③ 주어 '불안한 수비'와 서술어 '미숙하여'의 호응이 안 된다. '수비가 불안하고 문전 처리가 미숙하여'로 고친다.
④ '휴대(攜帶)'는 '손에 들거나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트럭이 방송장비를 휴대한'

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방송 장비를 실은 트럭'으로 고친다.

답 ①

06 ㉠~㉣의 풀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16. 국가직 7급

㉠ 春去花猶在 ㉡ 天晴谷自陰
杜鵑啼白晝 始覺㉢ 卜居深
—李仁老, 「山居」
㉣ 渭城朝雨浥輕塵, 客舍青青㉤ 柳色新
勸君更盡一杯酒, 西出陽關無㉥ 故人
—王維, 「送元二使安西」

- ① ㉠: 날이 개다. ② ㉡: 사는 곳이 깊다.
③ ㉢: 버드나무 빛깔이 새롭다. ④ ㉤: 돌아가신 분.

06 한시의 이해

- ㉠과 ㉣를 해석해 보자.
㉠ 春去花猶在(춘거화유재): 봄은 갔으나 꽃은 오히려 피어 있고
天晴谷自陰(천청곡자음): 날이 개었는데 골짜기는 절로 그늘지도다.
杜鵑啼白晝(두견제백주): 두견새가 대낮에 우니
始覺卜居深(시각복거심): 비로소 사는 곳이 산 속 깊음을 알겠노라.
㉣ 渭城朝雨浥輕塵(위성조우읍경진): 위성의 아침에 비 내리려 먼지를 적시고
客舍青青柳色新(객사청청류색신): 여관의 푸르디푸른 버들은 (비에 젖어) 더욱 싱그럽구나.
勸君更進一杯酒(권군갱진일배주): 그대에게 권하여 또 한잔 술을 건네노니
西出陽關無故人(서출양관무고인): 서쪽으로 양관을 나서면 친구가 아무도 없을 것이네.
따라서 ㉤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친구'임을 알 수 있다.

답 ④

07 ㉠~㉣에 들어갈 한자성어를 순서대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 16. 국가직 7급

- ㉠ 그는 고집이 어찌나 센지 한번 결심하면 ()이다.
㉡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라는 속담은 ()와 일맥상통하는 말이다.
㉢ 아무리 ()한 인물이라도 좋은 동료를 만나지 못하면 성공하기 힘들다.

- ① 搖之不動－間於齊楚－蓋世之才
② 搖之不動－看於齊楚－改世之才
③ 擾之不動－間於齊楚－改世之才
④ 擾之不動－看於齊楚－蓋世之才

07 한자 쓰기

- 우선 한자를 구별해 보자.
㉠ 搖: 흔들(요), 擾: 어지러울(요)
㉡ 間: 사이(간), 看: 볼(간)
㉢ 蓋: 덮을(개), 改: 고칠(개)
한자성어의 의미를 생각해 보자.
㉠ 요지부동: 흔들어도 꿈쩍하지 아니함
㉡ 간어제초: 약자가 강자들 틈에 끼어서 괴로움을 겪음을 이르는 말. 중국의 주나라 말엽 등나라가 제나라와 초나라 사이에 끼어서 괴로움을 겪었다는 데서 유래
㉢ 개세지제: 세상을 뒤덮을 만큼 뛰어난 재주. 또는 그 재주를 가진 사람
따라서 한자성어에 어울리는 한자는 ①임을 알 수 있다.

답 ①

08 ㉠~㉣의 표제어에 적합한 한자 표기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16. 국가직 7급

- ㉠ 유세: 자기 의견 또는 자기 소속 정당의 주장을 선전하며 돌아다니
㉡ 조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민이나 주민으로부터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금전
㉢ 탐본: 비석, 기와, 기물 따위에 새겨진 글씨나 무늬를 종이에 그대로 떠냄

- ① 遊說－徂歲－拓本 ② 遊說－租稅－擗本
③ 誘說－徂歲－擗本 ④ 誘說－租稅－拓本

08 한자 쓰기

- ㉠ 遊: 놀(유), 誘: 꺾(유)
㉡ 租: 세금(조), 徂: 갈(조), 稅: 세금(세), 歲: 해(세)
㉢ 拓: 두드릴(탁), 攄: 적(척), 擗: 뺄(탁)
따라서 문맥에 어울리는 한자는 ②가 적절하다.

답 ②

09 우리말과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6. 국가직 7급

- ① ‘보라매’와 ‘수라’는 몽고어에서 유입된 말이다.
- ② 모음조화 현상은 현대 국어보다 중세 국어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 ③ 15세기부터 주격 조사 형태 ‘가’가 나타나서 활발하게 사용되었다.
- ④ 훈몽자회(訓蒙字會)에는 한글 자모의 명칭과 순서가 나타난다.

09 우리말과 글의 특징

- ③ 15세기에는 주격조사가 ‘이’ 하나밖에 없었다. 임진왜란 이후에야 ‘가’가 쓰이기 시작했다.
- ① ‘보라매’와 ‘수라’는 몽고어에서 유입된 귀화어가 맞다.
- ② 모음조화는 15세기에 철저하게 지켜지다가, 임진왜란 이후 아래아(·) 음가 혼란으로 파괴되기 시작하였다.
- ④ 훈몽자회에서 한글 자모의 명칭과 순서를 처음 발견할 수 있다.

10 다음 글에서 ‘신(臣)’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16. 국가직 7급

신(臣)이 부영(傅榮)에게 말하였습니다.
 “수차(水車) 만드는 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당신은 어디에서 수차를 보았습니까?”
 “지난번 소흥부(紹興府)를 지날 때, 어떤 사람이 호수 언덕에서 수차를 돌려 논에 물을 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힘을 적게 들이면서 물을 많이 퍼 올리더군요. 가뭄에 농사짓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차는 물을 푸는 데만 사용될 뿐이니 배울 것이 못 됩니다.”
 “우리나라는 논이 많은데 자주 가뭄이 들지요. 만약 수차 만드는 법을 배워 우리 백성에게 가르쳐 준다면 농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대가 조금만 수고해 가르쳐 주면, 우리 백성 대대로 큰 이익이 생길 것이요, 그 제작법을 잘 알아보시되 모자란 점이 있으면 뱃사람들에게 물어서 정확히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 ① 공리공론(空理空論) ② 실사구시(實事求是)
- ③ 이용후생(利用厚生) ④ 주권재민(主權在民)

10 인물의 태도

- 이 글의 내용을 정리해 보자.
- 신-수차→백성 대대로 큰 이익
- 여기서 ‘수차를 농사에 이용하는 것은 ‘利用’ ‘백성 대대로 큰 이익’은 ‘厚生’에 해당한다.
- ① 공리공론: 실천이 따르지 아니하는, 헛된 이론이나 논리
- ② 실사구시: 사실에 토대를 두어 진리를 탐구하는 일
- ③ 이용후생: 기구를 편리하게 쓰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넉넉하게 하여, 국민의 생활을 나아지게 함
- ④ 주권재민: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

11 전화를 사용할 때, 표준 언어 예절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 ① 아녜요, 전화 잘못 거셨습니다.
- ② 네,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바꾸어 드리겠습니다.
- ③ 지금 안 계십니다. 들어오시면 뭐라고 전해 드릴까요?
- ④ 잘 알겠습니다. 이만 끊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1 전화 예절

- ①의 ‘아녜요’는 잘못 걸려온 전화를 받은 사람의 응대로 적절하지 못하다.
- 모르는 사람에게는 합쇼체를 써야 한다.

12 다음 광고 문안에 포함된 담화의 기능이 아닌 것은?

이 선풍기는 바람을 차게 하는 장치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방 안에 없을 때에는 자동으로 멈춥니다. 그리고 물건이 와 닿으면 소리가 나서 어린이를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일 년 이내에 고장이 나면 즉시 새 물건으로 교환해 드립니다.

- ① 호소 기능 ② 정보 제공 기능
- ③ 약속 기능 ④ 오락 기능

12 담화의 기능

이 광고문은 모두 4개로 이루어졌는데, 그 중 첫째 문장부터 셋째 문장은 ① ②와 관련되고, 마지막

문장은 ③과 관련된다.
 이 글에는 오락의 기능과 관련된 대목이 보이지 않는다.

13 다음 글을 문맥에 맞게 배열한 것은?

옥은 공격성의 표현이자, 말로 하는 폭력이다. 아이가 옥을 배워 친구 앞에서 옥을 하는 것은 어른 세계에 대한 반항이자 거기서 벗어나고 싶다는 표현이다.
 그들이 집회에서 내뿜는 폭언은 자신들과 기성세대의 차이를 분명하게 구분 짓는 행동 양식이었다. 기성세대와는 다른 그들만의 독자성을 가진 집단을 만들어내기 위한 방법이었다.
 그러나 옥은 특수 용어가 아니다. 특수 용어는 개념을 더 정확하게 나타내고 미묘한 뉘앙스 차이를 분명하게 한다. 언어 그 자체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해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하지만 옥과 같은 추한 말은 언어를 저하시키고 못쓰게 만든다.
 1968년 이탈리아에서 학생운동이 시작되었을 당시, 학생들이 귀에 담기에 힘든 폭언을 내뿜은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다. 자신들은 규범을 깨뜨릴 것이며 이제 기성세대에, 국가 권력에 따르지 않겠다는 성명이었다. 학생 집회에 참가했던 사람들은 놀라서 그 자리에 못이 박히고 말았다. 입만 열면 욕설이 난무하는 집단 속에서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바보나 멍청이로 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학생들 흉내를 내며 학생들 편에 설 수도 없었다.
 어떤 집단이나 직업에도 특수한 말이 있다. 의사, 변호사, 공증인 등 이들이 외부 사람들이 알아듣기 어려운 전문 용어를 쓰는 것은 동료 간의 의사소통에 편리할 뿐만 아니라 타 분야와 확실히 구별을 짓고 싶기 때문이다. 그래서 화자가 특수 용어를 쓰지 않고 일반적인 말을 쓰면 그 분야 사람들은 화를 낸다. 배신당한 기분이 들기 때문이다.

- ① ㉠-㉡-㉢-㉣ ② ㉠-㉡-㉣-㉢
- ③ ㉡-㉢-㉠-㉣ ④ ㉡-㉢-㉣-㉠

13 글의 순서 바로잡기

- 우선 이 글의 ㉠과 ㉡을 정리해 보자.
- ㉡ 그들이 집회에서 내뿜는 폭언- 자신들과 기성세대의 차이를 분명하게 구분 짓는 행동 양식
- ㉠ (그러나) 옥- 특수 용어×→언어를 저하시키고 못쓰게 만들
- ㉡는 ‘폭언’에 대한 이야기이고, ㉢는 그것과 다른 ‘옥’에 대한 내용이므로 ㉡-㉢의 순서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③과 ④는 답이 아니다.
- ㉣ (1968년 이탈리아 학생운동 당시) 학생들의 폭언- 같은 이유에서였음
- ㉢는 ㉡의 구체적인 사례이므로, ㉡-㉢-㉣의 순서가 되어야 한다.
- ㉠ 어떤 집단이나 직업- 특수한 말이 있음
- ㉢는 ㉡의 구체적인 사례이므로 ㉡-㉢의 순서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답은 ②이다.

14 ‘고공’이 조정의 신하를 비유한다고 볼 때,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집의 옷 밥을 두고 빌어먹는 저 고공(雇工)아
 우리 집 기별을 아느냐 모르느냐
 비 오는 날 일 없을 때 새끼 꼬면서 이르리라
 ㉠ 처음의 한 아버지 살림살이 하려 할 때
 인심(仁心)을 많이 쓰니 사람이 절로 모여
 풀 베고 터를 닦아 큰 집을 지어 내고
 씨레 보습 쟁기 소로 전답(田畠)을 기경(起耕)하니
 울버는 텃밭이 ㉡ 여드레 같이로다
 자손(子孫)에 전계(傳繼)하여 대대(代代)로 내려오니
 논밭도 좋거니와 고공도 근검터라
 저희마다 농사지어 부유하게 살던 것을
 요사이 고공들은 생각이 어이 아주 없어
 밥 사발 크나 작으나 동웃이 좋고 곳으나
 마음을 다투는 듯 ㉢ 호수(戶首)를 시기하는 듯

무슨 일 감겨들어 흘깃할것 하는가
너희들 일 아니하고 시절(時節)조차 사나워
가뜩이나 내 세간이 줄어지게 되었는데
엇그제 ㉠ 화강도(火强盜)에 가산(家産)이 탕진하니
집 하나 불타 버리고 먹을 것이 전혀 없다
크나큰 세간을 어찌하여 일으키려느냐
김가 이가 고공들아 새 마음 먹으려무나

-허전 「고공가(雇工歌)」

- ① ㉠ : 태조 이성계 ② ㉡ : 조선 팔도
③ ㉢ : 임금 ④ ㉣ : 왜적

11 가사 작품의 이해

㉢의 '戶首'는 '땅 여덟 결(結)을 한 단위로 하여 공부(貢賦)를 바치는 일을 맡아 하던 사람'을 뜻하는 말로 여기서는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조선 중기에 허전(許愼)이 지은 가사. 순조 때 필사된 것으로 보이는 《잡가 雜歌》라는 노래책에 실려 있다. 작품 전체는 110행이다.

이 노래는 고공(雇工, 머슴)을 내세워 당시 국록을 먹는 신하들의 부패상을 우의적(寓意的)으로 고발하였다. 따라서 이 작품에는 교술적 성격이 짙다.

이 작품은 '처음의 한 어버이(태조 이성계)'가 나라를 연 이래, '여드레갈이의 살림살이(조선 팔도)'를 차려 놓고 인심을 많이 베풀어 국초(國初)의 '머슴(신하)'들은 모두 부지런하고 검소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머슴(신하)'들은 밥사발의 크고 작음과 의복의 좋고 나쁨을 다룰 뿐, 얼마 전에 '화강도(왜적)'가 쳐들어 와 집안 재물을 모두 망쳐 놓았는데도 합심협력해서 '농사(나랏일)'를 지으며 도둑을 막을 생각은 않고, 화살을 방치해 두고 의복과 '밥사발(녹봉)'만 다루고 있다. 그런 현실을 개탄하다 보니 어느새 새끼 한 사리를 다 꼬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작품 전반이 우의적 수법으로 짜여 있다.

작가는 임진왜란의 참화로 유교적 이상이 깨어진 비참한 현실에 직면하여, 이러한 현실을 성실하게 수습하려 들지 않는 신하들의 나태한 모습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표현하였는데, 이러한 비극적 감정의 이면에는 유교적인 이상 사회를 재건하려는 숭고한 의지가 내재되어 있다.

한편 이원익(李元翼)은 〈고공답주인가(雇工答主人歌)〉를 지어 이 노래에 화답하였다. <고공답주인가>는 임진왜란 이후 집권층이 정사(政事)보다는 당파 싸움에 힘쓰자, 작자가 '어른 중(영의정)'의 입장에서, '중(신하)'들을 나무라고 '마나님(임금)'을 경계하려는 의도로 지은 작품이다. ㉠ ㉢

16 다음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16. 국가직 7급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스러지는
이슬 더붙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천상병, 「귀천」

- ① 죽음에 대해 달관한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② 4음보의 반복을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③ 미련도 집착도 없는 무욕의 경지를 나타내고 있다.
④ 독백적인 어조로 답답하게 진술하고 있다.

16 작품의 이해

② 이 작품에는 4음보 리듬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① 이 세상에서의 삶을 소풍으로 표현하고, 죽음을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표현한 것에서 알 수 있다.

③ 하늘로 돌아갈 때, 손에 잡고 가는 것이 '이슬'이고, 함께 동반하고 있는 대상이 '노을빛'이라는 것에서 알 수 있다.

④ '-리'라는 '마음속으로 다짐하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이다. 이러한 어미 사용에서 '독백적 어조'를 느낄 수 있다. ㉠ ㉡

16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16. 국가직 7급

“남대문 정거장까지 말씀입니까?”

하고 김 첨지는 잠깐 주저하였다. 그는 이 우중에 우장도 없이 그 먼 곳을 철벽거리고 가기가 싫었음일까? 처음 것, 둘째 것으로 고만 만족하였음일까? 아니다, 결코 아니다. 이상하게도 꼬리를 맞물고 덤비는 이 행운 앞에 조금 겁이 났음이다. 그리고 집을 나올 제 아내의 부탁이 마음에 켜기었다. — 앞집 마마님한테서 부르러 왔을 제, 병인은 그 뻘만 남은 얼굴에 유일의 생물 같은 유달리 크고 움푹한 눈에 애걸하는 빛을 띠우며,

“오늘은 나가자 말아요. 제발 덕분에 집에 붙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라고 모기 소리같이 중얼거리고 숨을 거르렁거르렁하였다.

… (중략) …

“이 눈깔! 이 눈깔! 왜 나를 바루 보지 못하고 천정만 보느냐, 응?” 하는 말끝엔 목이 메어었다. 그러자, 산 사람의 눈에서 떨어진 닭의 똥 같은 눈물이 죽은 이의 뺨뺨한 얼굴을 어롱어롱 적시인다. 문득 김 첨지는 미친 듯이 제 얼굴을 죽은 이의 얼굴에 한데 부벼대며 중얼거렸다.

“설령탕을 사다 놓았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왜 먹지를 못하니…… 괴상하게도 오늘은 운수가 좋더니만…….”

-현진건 「운수 좋은 날」

- ① 사건의 결말을 암시하는 복선이 나타나 있다.
② 비극적 상황을 심화시키는 소재가 사용되고 있다.
③ 객관적인 서술 태도로 인물의 행동만을 그리고 있다.
④ 행운과 불안감이 교차되면서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다.

15 작품의 이해

③ 이 글에서는 인물의 행동뿐만 아니라, 인물의 대화도 활용하고 있다. 또 인물의 내적 세계를 그려 나가는 전지적 작가 시점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서술자가 객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이상하게도 꼬리를 맞물고 덤비는 이 행운 앞에 조금 겁이 났음이다.”에서 암시가 나타나고, “그 뻘만 남은 얼굴에 유일의 생물 같은 유달리 크고 움푹한 눈에 애걸하는 빛을 띠우며, 오늘은 나가자 말아요. 제발 덕분에 집에 붙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에서 복선이 나타난다.

② 이 작품에서 비극성을 심화시키는 소재는 ‘설령탕’이다.

④ “이상하게도 꼬리를 맞물고 덤비는 이 행운 앞에 조금 겁이 났음이다.”에서 알 수 있다. ㉠

17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16. 국가직 7급

文學教育論에 관한 관심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반면, 이를 저해하려는 움직임도 없지 않다. 그 같은 움직임은 주로 文學教育이 강화되면 國語科教育이 陳腐한 敎訓을 앞세운 道德主義 修身敎科로 轉落될지 모른다가나 혹은 文學 少年 少女의 感傷癖을 만연시키지나 않을까 하는 의구심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國語科를 언어생활의 능력 향상에만 묶어 두려는 견해다. 이들의 주장인즉, “文學活動은 인간이 가지는 여러 가지 言語活動 중의 한 類型에 불과하며, 文學作品이 國語科의 敎材로 많이 다루어지는 이유는 그것이 어휘량이 많고 문장 표현의 양상이 다채롭다는 조건뿐이다. 文學이 國語敎育의 核心은 될 수 없다. 國語敎育은 어디까지나 言語敎育이다.”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문학작품을 다루면서 왜 言語技能의 形式陶冶에만 그치고 그 본질적 가치는 외면하겠다는 것인지 명분이 선명치 않다. 이것은 분명히 언어의 본질을 用具的, 提報的인 것으로만 보고 感化的인 것을 무시하려는 태도에서 유래한다.

- ① 문학을 언어활동의 도구로만 보려는 관점을 비판하고 있다.
② 도덕주의를 중시하는 국어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③ 문학교육은 국어교육의 핵심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논증하고 있다.
④ 국어교육은 언어활동에 초점을 두어야 함을 적극 옹호하고 있다.

17 주제의 파악

끝에서 둘째 문장 시작 부분에 ‘그러나’라는 역접의 접속부사가 나온다. 그 뒤를 본다.

㉠ 문학작품-언어기능의 형식도야에만 그침+본질적 가치 외면

㉡ 언어의 본질-용구적, 제보적인 것으로 봄+감화적인 것 무시

이 두가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이 글의 필자는 ㉠과 같이 비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

18 ㉠~㉢의 문장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한 것은? • 16 국가직 7급

아이의 학교를 방문하는 날이었다. ㉠ 아침부터 흐린 게 비가 올런지 몰라 우산을 미리 챙겨 나갔다. ㉡ 길을 나서자 갑자기 곧 해님이

모습을 드러냈다. ㉔ 시장 입구에는 앓던 소녀들이 우산을 들고 왁자지껄 이야기를 하며 지나가고 있었다. ㉕ 소녀들의 모습에서 어렸을 때 어머니를 따라 시장에 갔던 기억이 두루뭉술하게 떠올랐다.

- ① ㉔의 ‘울런지’는 표기법에 맞게 ‘울른지’로 고친다.
 ② ㉔의 ‘해님’은 표기법에 맞게 ‘햇님’으로 고친다.
 ③ ㉔의 ‘앓던’은 표준어에 맞게 ‘앓던’으로 고친다.
 ④ ㉔의 ‘두루뭉술하게’는 의미상 자연스럽게 ‘어렵풋이’로 고친다.

18 맞춤법과 표준어

- ④ ‘기억이 ... 떠올랐다’라는 앞뒤 문맥으로 볼 때, ‘어렵풋이’를 쓰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① ‘울는지’가 옳다. 어미 ‘-른지/-런지’ 모두 틀린다.
 ② ‘님’은 접미사이므로 사이시옷을 쓸 수 없다. ‘해님’이 옳다.
 ③ ‘앓되(다)+ㄴ(관형사형어미)’로 분석할 수 있으므로 ‘앓던’이 옳다.

㉔ ④

19 ㉔ ~ ㉕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배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16. 국가적 7급

인간 본성이 이기적이나 혹은 이타적이나 하는 이분법적 질문은 흑백 논리를 지양하고 (㉔)을 강조하는 오늘날에는 그저 지적 호사자들의 관심이나 끝 법한 낡은 질문으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이다. 나아가 인간에게 내재된 본성 같은 게 실제로 있거나 한 것인지 근본적인 (㉔)을/를 품어볼 수도 있다. 인류 역사에서 이러한 생각은 비교적 최근까지도 전통적인 형이상학의 영역에 속한다고 여겨 왔기 때문에 인간 본성에 대한 답변도 대체로 철학이나 종교의 영역이 맡아왔다. 그 가운데에는 지혜의 원천으로서 인류의 삶에 훌륭한 (㉔)이/가 되어온 것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인간 중심적 사고에 (㉔)되었다는 근원적 한계를 갖는다.

- ① 다원성-의문-전범-착종 ② 다양성-회의-지침-고착
 ③ 중층성-질문-모범-연루 ④ 융합성-반문-통찰-편향

19 문맥에 어울리는 어휘

- ㉔ 문맥상 ‘흑백논리 지양’과 반대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하므로, ①이나 ②가 들어갈 수 있다.
 ㉔ 문맥상 ‘실제로 있거나 한 것인지’하면서 품는 생각과 관련된 말이므로, ① ② 모두 들어갈 수 있다.
 ㉔ 인류의 삶에 지혜의 원천이 되어 온 것들과 관련되므로, ① ② 모두 들어갈 수 있다.
 ㉔ 인간중심적 사고에 ○○되는 것이 근원적 한계라고 했으므로, ②의 ‘고착’이 어울린다.
 • 다원성: 사물의 근원이 많은 특성
 • 다양성: 모양, 빛깔, 형태, 양식 따위가 여러 가지로 많은 특성
 • 전범: ㉔ 본보기가 될 만한 모범. ㉔ 전형적인 법이나 규범
 • 지침: 생활이나 행동 따위의 지도적 방법이나 방향을 인도하여 주는 준칙
 • 착종(錯綜): ㉔ 이것저것이 뒤섞여 엉켜짐. ㉔ 이것저것을 섞어 모음
 • 고착: 특정한 대상이나 생각에 집착하여 벗어나지 못함. 또는 그런 상태

㉔ ②

20 다음 글에 이어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16. 국가적 7급

페니실린은 약품으로 정제된 이후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는 많은 세균과 질병을 치료하는 데 매우 효과적으로 작용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생제 사용이 잦아지자 세균들이 내성을 갖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항생제는 사람에게는 해를 주지 않으면서 세균만 골라 죽이는 아주 유용한 물질인데, 이 물질을 이겨내는 세균들이 계속 등장했다. 플레밍 또한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페니실린에 내성인 세균이 등장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이는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 현실화되었다. 페니실린에 내성을 가진 황색 포도상 구균이 곧 등장했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이후 새로운 항생제를 개발하여 감염증을 치료하려는 인류와, 항생제 내성을 획득하여 생존하려는 세균 간의 전쟁이 지금까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세균은 인류가 개발한 항생제에 내성을 갖추어 맞서고, 인류는 내성을 가진 세균에 대응하기 위해 또 다른 항생제를 만들어 반격을 하는 식이다.

이를테면 페니실린에 내성을 가진 황색 포도상 구균은 메티실린 제제가 개발되면서 치료의 길이 열렸다. 메티실린은 포도상 구균을

물리치며 맹활약했지만 세균도 가만있지는 않았다. 메티실린의 효과가 듣지 않는 강력한 세균들이 등장했고, 이에 인류는 반코마이신을 개발해 탈출구를 열었다. 이들 치료제로 효과를 볼 수 없었던 그람 음성 세균은 카바페넴으로 대응했다. 하지만 최강의 항생제인 카바페넴에 내성을 획득한 다제 내성균(슈퍼 박테리아)도 등장했다.

- ① 인류는 더 강력한 세균에 의해 멸망할 것이다.
 ② 항생제 사용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
 ③ 인류는 다제 내성균을 치료할 항생제를 개발할 것이다.
 ④ 앞으로 항생제에 내성이 없는 세균이 나타날 것이다.

20 글의 일관성-이어질 내용 파악

이 글의 마지막 단락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세균	인류
세균	페니실린
항색 포도상 구균	메티실린
강력한 세균	반코마이신
그람 음성 세균	카바페넴
슈퍼 박테리아	?

즉 세균과 인류 사이의 전쟁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내용의 전개상 이 글의 뒤에 이어질 내용은 ‘슈퍼 박테리아’에 대한 인류의 대응이 나와야 한다.

㉔ ③